



[금융] KB국민은행 퇴직연금 개편안 발표 "고객수익 우선" 05



Life

[라이프] 롯데백화점 창립 40주년 맞아 재도약 발판 마련 L1



이계문 신용회복위원장이 지난 10월 서울 은평구 소재 '서울특별시립 평화로운집'에서 중증장애인에게 발마사지를 하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

서민 끌어안는 '포용금융'... 신용 되살려 새 희망을

살맛나는 세상 이야기

신용회복위원회

금융피해자·소외자 긴급자금 지원 아동시설 학생들에 '새희망 장학금' 에어컨 기부로 보육시설 환경 개선 보행기 등 어르신 노후생활 지원도

지난 2003년 설립된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는 과중채무자 급증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서민의 조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탄생했다. 채무자를 위한 신용관리 등 공익적 업무수행을 위해 세워진 신복위는 서민금융 종합상담기관으로서 다양한 사회공헌을 통해 포용 금융을 실천하고 있다.

◆ 금융소외자 지원하는 '새희망힐링펀드'

신복위의 '새희망힐링펀드'는 서민·취약계층인 금융피해자 및 금융소외자에게 긴급자금을 지원하고, 범금융권 사회공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금융회사 및 유관기관의 법인카드 포인트로 마련된 사회공헌 기금이다. 지난 2012년부터 올해 6월을 기준으로 165억원의 기부금을 모아 금융피해자대출·금융소외자대출·채권소각·사회공헌사업 등에 총 123억원을 집행했다.

특히 신복위는 지난 8월 새희망힐링펀드기금운영위원회와 함께 '2019 새희망힐링펀드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신복위는 한국아동복지협회 소속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학생들과 서민금융지원제도를 이용한 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서류심사를 거쳐 장학생 175명을 선발했으며, 어려운 환경에서도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꿈을 향해 노력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수여식에 참석한 윤석현 금융감독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지금은 힘든 상황이다라



1 지난 8월 열린 '2019 새희망힐링펀드 장학증서 수여식'에서 이계문 신용회복위원장(가운데)이 힐링토크 콘서트에 참여하고 있다.
2 신용회복위원회는 지난 10월 전북 김제시청에서 열린 '독거노인 보청기 전달식'을 진행했다.
3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장(왼쪽)이 지난 7월 신정찬 한국아동복지협회장에게 5000만원 상당의 에어컨 57대를 전달하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

도 우리 사회의 응원과 격려를 마음 속에 잘 간직하고 학업에 정진해,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가 돼달라"며 학생들의 꿈을 향한 열정과 도전정신을 응원했다.

신복위는 장학금 수여 외에도 장학생들의 꿈을 향한 도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힐링 토크콘서트와 신용·금융교육을 실시했다. 신복위는 콘서트를 통해 장학생들의 꿈과 진로, 학업 등에 대한 고민을 공유하고 해소하는 시간을 마련해, 장학생들과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계문 신용회복위원장은 직접 강사로 나서 학생들의 인생의 멘토·금융지식 전도사로써 고등학생·대학생이 꼭 알아야 하는 신용·금융교육을 강연하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학업에 매진하는 학생

들을 응원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신복위 관계자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꿈을 향해 도전하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새희망힐링펀드 장학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취약계층 아우르는 포용금융

신복위의 포용금융은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사회 취약계층에게까지 고루 전달되고 있다. 포용적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신복위는 지난 7월 한국아동복지협회 소속 아동양육시설 28곳에 에어컨 57대를 전달했다.

에어컨은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필요물품 1순위로 선정됐다. 재정이 열악한 시설이 자력으로 구입하기 어려운 고가 가전이기

때문이다. 신복위는 이같은 어려움에 공감하고, 에어컨을 아동들의 생활공간인 방, 거실, 식당 등에 설치해 아동들의 여름나기 준비를 도왔다.

이 위원장은 "더운 여름이 시작되기 전에 에어컨이 설치돼, 아이들이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어 다행"이라며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보육시설의 아동들에게 사회적인 관심과 지원이 계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신복위는 지난 10월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과 함께 서울 은평구에 있는 '서울특별시립 평화로운집'을 방문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임직원 봉사활동을 펼쳤다.

서울특별시립 평화로운집은 재대한구 세균유지재단법인이 운영하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로, 만 18세 이상 무연고자 1~2급 장애인 총 134명이 생활하는 곳이다. 신복위와 서금원은 자원봉사 교육을 시작으로 발마사지·식사보조·조리실 지원·환경정비 등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입소 장애인들과 함께 소중한 하루를 보냈다.

서민금융기관을 자처하는 신복위는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 봉사활동도 빼놓지 않고 있다. 신복위는 고령화 시대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9월 지난 충청남도청과 함께 도내에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다리가 돼줄 노인 보행기를 지원했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70세 이상 어르신 400명이 이날 노인용 보행기를 지원받았다. 이외에도 신복위는 노인성 난청을 겪고 있는 저소득 독거노인 분들에게 맞춤형 보청기를 지원하는 사회공헌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신복위 관계자는 "새희망힐링펀드의 재원으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따뜻한 금융, 포용 금융을 널리 실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민영 기자 hong93@metroseoul.co.kr